

알코올 중독 관련 주종 및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신 성 식

알코올 중독 관련 주종 및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지도 정 우 진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신 성 식

신성식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년 12월 일

감사의 글

2005년 11월~2005년 1월은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우쳐준 사건이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다보니 더욱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다. 비록 이 논문이 국제 학회지에 실리지 않더라도 개인과 학교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논문 예비시험과 본시험은 학력고사나 입사시험만큼 긴장을 불러왔다. 게을렀던 탓도 있었고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도 있었다. 한 학기를 넘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였다.

그 때마다 힘이 돼 준 사람은 지도 교수인 정우진 교수님이었다. 부심 이신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님, 삼성화재 최은영 차장님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저를 대학원으로 이끌어준 손명세 교수님도 보이지 않는 후원자였다.

제가 쓴 줄고의 바탕 논문을 쓴 이락현 선생님, 짬짬이 도움말을 주신 건보공단 손문락 차장, 고민경 선생님도 잊을 수 없다. 또 알코올 중독자 설문조사를 대신해주신 알코올 상담센터 기술지원단 조현섭 단장님, 전영민 박사님, 박응경 연구원, 설문을 도와주신 전국 알코올상담센터와 알코올 치료 병원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을 지지해준 아내 도진희님과 아들 동훈에게 사랑을 보낸다.

2005년 12월

신 성 식 올림

차 례

국문요약	i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5
1) 연구 자료	5
2) 분석 방법	5
4. 문헌 고찰	7
II. 연구 결과	9
1. 알코올 중독을 야기한 주종에 관한 설문조사	9
1) 표본 추출 방법	9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
3) 설문조사 결과	13
2. 국내 알코올 소비량과 순수 알코올 소비량	18
1) 알코올의 분류	18
2) 국내 주류 공급량	19
3) 국내 순수 알코올 공급량	27
4) 알코올 3분류에 따른 주종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	32
3.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 추계	34
1)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	34
2)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	35
4. 고찰	37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37
2) 연구 내용에 대한 고찰	40

Ⅲ. 결 론	41
참고문헌	46
부 록	48
설문응답현황	54
ABSTRACT	55

표 목차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1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13
표 3.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한 달 전 가장 많이 마신 술	14
표 4. 소주를 가장 많이 마신 이유	15
표 5. 알코올 중독 야기한 주종과 소득의 관계	16
표 6. 소주를 마신 일수	17
표 7. 최초 음주 연령	18
표 8. WHO 방식에 의한 주류의 3분류	19
표 9. 연도별 주요 국내 주류 출고량 현황	21
표10. 연도별 주류 수입량 현황	24
표11. 연도별 주류 공급량 현황	26
표12. 주종별 기준 도수 현황	28
표13. 연도별 국내 순수 알코올 공급량	31
표14. 분류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	32
표15.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	34
표16.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	36

국문 요약

음주인구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알코올로 인한 폐해도 크지고 있다. 음주로 인한 대표적인 폐해가 알코올 중독자이다. 현재 알코올 중독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정부에서 350만명 정도로 추정해 사용할 뿐이다. 알코올 중독을 야기하는 술이 어떤 것인지, 어떤 술이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켰는지 조사한 적이 없다.

알코올 중독자 600명을 설문조사해 중독을 야기한 술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자료를 활용해 2003년 국내 주류 공급량과 순수 알코올 공급량, 주종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의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알코올 중독자의 85.9%가 치료 서비스를 받기 한 달 전에 가장 많이 마신 술로 소주를 꼽았다. 맥주는 6.6%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탁주, 양주 등이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44%는 소주를 많이 마시는 이유로 값이 싸고 빨리 취해서라고 답했다. 입맛에 맞아서 소주를 마신다는 사람도 35.1% 였다. 구하기가 쉬워서라고 답한 사람은 7.1%, 주변에서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6.2% 였다.

소주를 마시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 중 42.7%가 월소득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101만~200만원인 사람은 33.4% 였다.

2003년 기준으로 주종 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을 조사했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주종별 알코올 공급량부터 조사했다. 2003년 국내에서 생산됐거나 수입된 알코올은 314만kl로 맥주가 60.9%, 소주가 29.6%, 탁주와

약주가 6.02%, 위스키 1.2% 였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함유량(맥주 4도, 소주 22도)을 뺀 게 순수 알코올 공급량이다. 2003년 순수 알코올 공급량은 2537만6978kg이다. 주종 별로는 소주가 63.6%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맥주가 23.8%, 위스키 4.8%, 탁주와 약주 4.1%, 청주 1.2% 등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락현이 산출한 2003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24조2719억원이다.

순수 알코올 공급량의 주종 별 비율에 따라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나눠 주종별 비용을 구했다. 소주가 15조4345억원, 맥주가 5조7840억원, 위스키가 1조1724억원 등이었다.

소주가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의 대부분을 야기하는데도 우리나라의 소주 주세는 맥주보다 18% 포인트 낮게 책정돼 있다. 소주는 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많이 마시기 때문에 값을 올릴 경우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중순 소주세를 인상하려다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반대에 부딪쳐 인상 방침을 철회한 적이 있다. 이번 연구는 소주 세율을 올리면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낮은 가격 때문에 서민들이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 경제적 피해를 더 본다는 점을 밝혀냈다.

핵심어 : 알코올, 알코올 중독, 주종, 사회경제적 비용, 소주, 맥주, 위스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음주 문화를 갖고 있다. 서로 서로 술을 권하는 권주문화가 뿌리 깊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술을 강권하는 게 예사이다. 한 차례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끝내는 경우가 드물다. 2차, 3차로 이어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도 허다하다. 1차에서는 약한 술로 시작해 점점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로 주종을 바꾸기도 하고 반대로 소주나 양주와 같은 독한 술을 먼저 마시고 맥주를 또 마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밤새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아 출근길에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은 1986년 48.3%에서 92년 57.9%로, 2003년에는 64.3%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음주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86년 20.6%에서 92년 33%, 2003년 49%로 증가했다. 17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통계청, 2004).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다. 국민들이 자주 마시는 술은 소주와 양주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가 59.9%를 차지한다. 맥주는 37%로 소주나 양주보다 낮다. 남자는 76%가 고도주를 마신다. 나이가 들수록 소주와 양주를 마시는 사람은 늘고 맥주는 줄어든다. 10대 음주자들의 67.5%가 맥주를 32.5%는 소주와 양주를 마신다. 40~59세의 21%는 맥주를, 73.8%는 소주와 양주를 마신다(정우진 등, 2004). 이를 반영하듯 15세

이상 국민 한 사람이 연간 소비하는 고도주의 소비량은 2003년 기준으로 4.5ℓ로 러시아-라트비아-루마니아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장근호, 2005). 직장인이 가장 즐겨 마시는 술은 소주이다. 직장인의 62.5%가 소주를, 25.1%가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신다(삼성경제연구소, 2004).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모든 사망의 2.7%가 흡연 때문에, 3.5%가 알코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의 해악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사고와 익사 등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34%, 살인의 47%, 자살의 41%, 방화의 44%가 알코올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David H. Jerigan, Global Status Report, 2001).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해악이 알코올 중독이다. 우리나라의 성인 알코올 중독자는 약 350만 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떤 술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지를 조사한 자료가 거의 없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맥주와 같은 비교적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많이 마시는지, 아니면 소주나 양주와 같은 독한 술을 즐기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술이 야기하는 해악은 알코올 중독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 폭력의 11%, 교통사고 사망이나 부상의 15%가 숙취상태에서 발생하며 음주소란 단속은 연간 7만4천 건이 발생한다. 또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20~25%는 음주와 관련이 있다. 음주 때문에 남자는 3.1년, 여자는 1.1년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추정한다.¹⁾

주: 1) 정우진 등, 알코올의 보건경제학,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4(원재료: 천성수 등 대학생 절주홍보교육의 이론과 실제, 2001)

알코올은 간 경변, 간암 등을 일으키고 구강암·후두암·식도암·고혈압·신생아결함·교통사고·자살·타살의 주 원인이 되며 위장이나 췌장 질환, 신경계 질환, 감정 장애 등과 같은 정신 장애를 일으킨다. 그리고 자연 유산, 신생아 사망, 성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연간 총 사망자의 10명 중 3명은 음주 관련 질환 때문에 숨지고 그 중 1명은 음주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다(김광수, 2004).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중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한 연간 유병률은 6.8%로 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221만 명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01). 그런데도 직장인의 83%가 주 1회 이상 술을 마신다. 한 주에 2~3회 술을 마시는 직장인도 29%나 된다. 술을 열 번 마실 때 세 번 이상 과음하는 직장인이 24.7%에 달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4). 이처럼 알코올이 야기하는 해악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도 엄청나다. 알코올 섭취와 관련한 질병이나 상해 등은 흡연으로 야기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천성수, 2001).

알코올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일반인의 음주양태를 통해 접근하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측정법과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을 측정하는 집단적 수준에서의 측정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소비가 증가하면 음주 관련 폐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 알코올 소비량을 통해 음주 관련 폐해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술은 20가지가 넘는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술의 종류가 다르다. 나라마다 많이 팔리는 주종도 다르다. 멕시코의 데킬라, 러시아의 보드카처럼 그 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면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술도 있다. 알코올의 전체 사회 경제적 비용도 중요하지만 주종 별 비용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술이 있다. 소주와 탁주(약주)가 그것인데 대중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고 일본 등지로 일부 수출되기도 한다. 주종 별 사회 경제적 비용 자료가 있어야만 소주와 탁주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음주 정책의 타격을 정할 수 있다. 알코올의 해악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하되 어디에다 집중할지 목표가 정해질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세이다. 세율 정책으로 주종 별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알코올 중독자들이 주로 많이 마신 술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해 알코올 중독과 주종과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맥주·와인·증류주·소주 등 주종 별 연간 공급량과 순수 알코올 공급량을 산출해 주종 별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 주종별 손실 기여도를 고려한 적정 주류정책의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 중독을 야기하는 술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한다.

둘째, 주종 별 주류 공급량과 순수 알코올 공급량 분포를 산출한다.

셋째, 전체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 추계 결과를 토대로 주종 별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하는 주종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05년 11월 15부터 열흘 간 전국 14곳의 알코올 상담센터와 11곳의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600명을 설문 대상으로 했다.

국내 알코올 소비량과 순수 알코올 공급 현황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통계를 활용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의 출고량은 국세청의 2000~2003년 통계 연보에서 구했다. 국내에 수입된 주류는 관세청 통계에서 산출했다.

알코올의 사회경제적 비용 통계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2003년 추계치(이락현, 2005)를 활용했다.

2) 분석방법

가. 주종별 알코올 중독의 관련성

설문지는 600명에게 돌렸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415명이었고 부실하게 작성된 4명을 제외하고 411명을 분석했다. 알코올 상담센터는 204명,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서는 207명이 응답했다.

알코올 중독과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카이스케어 검증을 사용했다.

나. 국내 주류 공급량

국내 알코올 소비량은 국내에서 생산·출고된 주류와 외국에서 수입한 주류를 합산했다. 국내 주류는 국세청의 2003년 국세통계연보의 연도별 주요 주류 출고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수입 주류는 관세청의 2003년 주요 주류 수입 현황 자료를 사용했다. 국세청 출고현황에는 주세를 매긴 제품만 포함되어 있고 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출 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류 수출 물량은 국내 주류 공급량에서 제외했다.

다. 순수 알코올 공급량

술에 포함된 순수 알코올만 뽑아서 주종별 공급량을 구했다. 술의 총량보다는 그 속에 포함된 순수 알코올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주종 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은 주종 별 주류 공급량과 알코올 비중, 주종 별 알코올 기준 도수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

라. 주종 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 추계

주종 별 사회 경제적 비용을 국내 주류 3분류법에 따라 맥주, 와인, 증류주로 먼저 산출했다. 다시 증류주를 소주와 기타로 나눠 산출했다. 증류주 중에서 소주가 가장 많기 때문에 소주의 비용을 별도로 구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이락현(2005)이 산출한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주종 별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계했다. 순수 알코올 공급량에서 주종 별 비율을 구한 뒤 그 비율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입하면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나온다.

4. 문헌 고찰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는 더러 있었다. 노인철 등은 우리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95년 기준으로 약 9조5670억원으로 추정했다. 1)

정우진 등(2004)은 2000년 기준으로는 14조9352여억원에 상당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주종 별로는 소주가 12조9294억원, 맥주가 1조1291억원, 와인이 7781억원 등으로 추계했다.2) 주종 별 사회 경제적 비용은 이 연구가 처음이었다. 기획예산처도 2005년 9월 음주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표할 때 이 자료를 인용했다. 소주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맥주의 12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락현(2005)은 2003년 기준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3) 추계방법은 2004년 정우진 등이 사용한 틀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 결과 2003년 기준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4조2719억원으로 추정됐다. 노인철 등이 추정한 95년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약 2.75%, 정우진 등의 2000년 사회 경제적 비용은 2.28%에 달한다. 이락현의 연구 결과는 GDP의 3.33%까지 올라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독일은 93년 기준으로 2.8~4.2%, 미국은 83~88년 1.7~3.4%, 일본은 87년 기준으로 1.89%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술의 종류에 따라 위험을 유발하는 정도와 관련한 연구는 더러 있었다.

유태우 등이 15세 이상 1,045명을 대상으로 선호 주종이 고위험 음주에 미

1) 노인철 등,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정우진 등, 알코올의 보건경제학,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4

3) 이락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5

치는 영향을 조사했더니 소주를 선호하는 사람은 맥주 선호자보다 중위험 또는 고위험¹⁾ 음주 위험이 세 배 높았다. 양주 선호자는 맥주에 비해 네 배 가량 높았다. 이는 선호 주종만을 고려한 것이다. 선호 주종 외에도 성·연령 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면 소주 선호자는 맥주 선호자에 비해 중위험 또는 고위험 음주의 위험이 약 3배 높았다. 양주·탁주·포도주 선호자는 맥주 선호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정우진 등(2003)이 음주 주종과 급성 위해 유발 음주 위험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양주는 맥주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위험 음주와 관련성 강도가 12.3, 소주가 3.05 이었다.²⁾ 정우진(2004)이 15세 이상 1045명을 전화 설문 조사해 음주 주종과 고위험 음주를 조사했다. 양주는 맥주에 비해 9.67, 소주는 3.13 이었다.³⁾ 선행 연구에서 보듯 고도주인 소주와 양주가 급성 유해를 유발할 위험이 맥주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술에 따라 사회 경제적 비용이 다르다는 뜻이다. 이 외에 주종 별 음주의 위해도와 주종 별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연구를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유사한 연구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계와 평가(장영채, 2002)가 있으나 이는 음주 운전에 국한된 것으로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2004년 정우진 등의 연구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2000년 주종 별 사회경제적 비용과 2003년 비용을 비교해 제시하기로 한다.

1) WHO는 만성위해를 유발하는 음주 위험도를 하루 평균 순수 알코올 소비량에 따라 분류한다. 남성이 하루에 순수 알코올을 1~40g을 소비하면 저위험 음주, 41~60g은 중위험, 61g 이상이면 고위험 음주에 해당한다. 여성은 1~20g, 21~40g, 41~60g이면 각각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속한다.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알코올의 비중(0.79g)을 감안해 산출하는데, 가령 소주 1병(360ml)에는 60g 정도의 순수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다.

2) 정우진 등, 음주 주종과 급성 위해 유발 음주 위험도, 2003

3) 정우진, 음주 주종과 고위험 음주, 2004

II. 연구 결과

1. 알코올 중독을 야기한 주종에 관한 설문조사

1) 표본 추출 방법

2005년 11월 15부터 열흘 간 전국 14곳의 알코올 상담센터와 알코올 전문병원 11곳에서 통원 치료하거나 입원 중인 알코올 중독자 600명을 설문조사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사람은 415명이었으며 이 중 설문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411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알코올상담센터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사람이 204명,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207명이었다.

알코올 상담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알코올 치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관이며 전국에 20곳이 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부산·대전·울산·수원·아산·목포·진주·일산·포항과 강원·전북·제주·영동 지역센터가 응했다.

이 센터에서 통원 치료하는 환자는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다. 술은 끊은 상태다.

알코올 전문병원은 부산대학병원, 광주 시립인광정신치매병원, 대전 한광수신경정신과, 울산 마야병원, 포항의료원, 진주정신병원, 한라의료원, 강릉

아나병원, 카프병원, 구민병원, 카프거주시설 등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병원 입원 환자들은 알코올 중독에 걸렸거나 치료 후 재발한 사람들이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자가 90.3%로 여자보다 훨씬 많았다. 여자는 32명으로 7.8%에 지나지 않았다. 음주 인구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도 남자가 많은 것이다.

나이는 40대가 3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2.2%로 많았다. 30대도 20.3%를 차지해 50대와 비슷했다. 2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4.1%와 9%나 됐다.

알코올 상담센터나 전문 병원에서 치료 서비스를 받기 전 한 달 동안 집 안에서 갈등을 겪은 사람이 67.4%나 됐다. 알코올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47.9%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현재 정부에서 의료비 보조를 받는 의료급여 대상자였다.

치료 서비스를 받기 전 월 수입은 101만~2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의 28.5%를 차지했다. 50만원 이하가 20.2%, 51만~100만원이 19%나 됐다. 100만원 이하의 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39.2%나 됐다.

월소득이 210만원을 넘어가면서 알코올 중독자는 줄어들었다. 201만~300만원인 사람은 14.1%, 301만~500만원은 6.8%, 501만원 이상은 3.2%였다.

301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합하면 10%에 지나지 않았다.

직업은 전문직 보다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많았다. 운전, 목공·숙련공 등의 기능직·생산직 종사자가 2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개인택시나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가 12.9%로 뒤를 이었다. 수위 등의 단순 노무자가 11.9%를 차지했다. 직업이 없는 사람도 12.4%나 됐다. 세탁이나 이·미용업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8.8% 였다. 반면 대학교수·의사·변호사·예술가·연구원 등의 전문직 종사자는 1명(0.2%)에 불과했다.

최종 학력은 고졸이 164명(39.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졸이 75명(18.2%), 대졸 73명(17.8%), 초등학교졸 50명(12.2%), 대학원졸 10명(2.4%), 무학 12명(2.9%) 순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변수	범주	빈도(%)
성	남자	371(90.3%)
	여자	32(7.8%)
	무응답	8(1.9%)
연령	20~29	17(4.1%)
	30~39	83(20.3%)
	40~49	164(39.9%)
	50~59	91(22.2%)
	60이상	37(9.0%)
	무응답	19(4.6%)
결혼여부	결혼	255(64.7%)
	미혼	139(33.8%)
	무응답	6(1.5%)
치료전 한달동안 가정갈등	있었다	277(67.4%)
	없었다	113(27.5%)
	무응답	21(5.1%)
치료 전 월수입(만원)	50이하	83(20.2%)
	51~100	78(19.0%)
	101~200	117(28.5%)
	201~300	58(14.1%)
	301~500	28(6.8%)
	501이상	13(3.2%)
	무응답	34(8.3%)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변수	범주	빈도(%)
직업	농업·어업· 임업	29(7.1%)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	53(12.9%)
	서비스업(세탁,이·미용업, 요식·숙박업 등)	36(8.8%)
	판매·영업직(소·도매업,보험,부동산 등)	20(4.9%)
	기능직·생산직 (운전,목공·숙련공 등)	84(20.4%)
	단순 노무자(수위 등)	49(11.9%)
	4급이상 공무원,기업체 부장이상,교장 등	5(1.2%)
	대학교수·의사·변호사·예술가·연구원 등	1(0.2%)
	기술직,교사,5급공무원	20(4.9%)
	기업 사무직,6급 이하 공무원 등	14(3.4%)
	전업주부	12(2.9%)
	대학생·대학원생	1(0.2%)
	무직	51(12.4%)
	기타	17(4.1%)
	무응답	19(4.6%)
의료급여 여부	대상자	197(47.9%)
	비대상자	191(46.5%)
	무응답	23(5.6%)

3) 설문 조사 결과

알코올 상담센터나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으로 들어오기 한 달 전에 가장 많이 마신 술은 소주였다(표3). 응답자의 85.9%인 353명이 소주를 폼았다.

소주가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맥주 27명(6.6%), 탁주 20명(4.9%)가 뒤를 이었다. 맥주나 탁주는 소주에 비해 알코올 중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한 달 전 가장 많이 마신 술

주종	응답자	비율(%)
맥주	27	6.6
소주	353	85.9
양주	2	0.5
탁주	20	4.9
포도주	1	0.2
무응답	8	1.9
계	411	100

소주를 많이 마신 이유에 대해 응답한 사람은 339명이었다. 이 중 값이 싸고 빨리 취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149명(44%)으로 가장 많았다(표4). 입맛에 맞아서라고 응답한 사람도 35.1%나 됐다. 다음으로 파는 데가 많아 구하기가 쉬워서라고 답한 사람이 7.1% 였다. 주변에서 많이 마시기 때문에 소주를 많이 마신다는 사람은 6.2% 였다.

표 4. 소주를 가장 많이 마신 이유

이유	응답자	비율
값이 싸고 빨리 취해서	149	44.0
입맛에 맞아서	119	35.1
주변에서 많이 마시기 때문에	21	6.2
과는 데가 많아 구하기가 쉬워서	24	7.1
기타	26	7.6
계	339	100.0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 술의 종류와 월 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소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

이번 조사에서는 알코올 상담센터나 알코올 전문병원의 치료 서비스를 받기 전 1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 결과, 치료 서비스를 받기 한 달 전 소주를 가장 많이 마셨다고 응답한 사람 중 월 소득을 밝힌 사람은 326명이었다. 이 중 50만원 미만이 71명(21.8%), 51만~100만원이 68명(20.9%)으로 100만원 이하가 139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1만~200만원에 든 사람이 109명(33.4%), 201만~300만원이 47명(14%), 301만~500만원이 22명(6.7%), 501만원 이상이 9명(2.8%) 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주가 대중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주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탁주를 즐겨 마신 사람의 72.2%(13명)가 월 소득 100만원을 밑돌았다. 맥주는 소득 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 5. 알코올 중독 야기한 주종과 소득의 관계

월소득 (만원)	맥주	소주	탁주	포도주
50 이하	2(8.3%)	71(21.8%)	7(38.9%)	0
51~100	3(12.5%)	68(20.9%)	6(33.3%)	0
101~200	4(16.7%)	109(33.4%)	3(16.7%)	0
201~300	8(33.3%)	47(14.0%)	1(5.6%)	1(100%)
301~500	2(20.8%)	22(6.7%)	1(5.6%)	0
501 이상	2(8.3%)	9(2.8%)	0	0
계	24(100%)	326(100%)	18(100%)	1(100%)

주: 소득과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카이스케어 검증을 한 결과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음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한 달 내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표6). 이 질문의 응답자 335명 중 77명(23%)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일 내내 소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빠진 29일 동안 소주를 마시는 사람도 3명, 28일 마시는 사람은 5명이나 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5%가 한 달에 16일 이상, 즉 이틀에 한 번 꼴로 소주를 마시고 있다.

표 6. 소주를 마신 일수 (월평균)

음주일수	응답자	비율(%)
1~5 일	40	12.0
6~10 일	56	16.8
11~15 일	50	14.9
16~20 일	60	17.9
21~25 일	37	11.1
26 일	1	0.3
27 일	6	1.8
28 일	5	1.5
29 일	3	0.9
30 일	77	23.0
계	335	100.0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한 평균 연령은 24.08세였다(표7).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 초반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4.8%가 20~24세에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16~19세가 21.3%로 뒤를 이었다. 15세 이하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도 3.1%였다. 24.4%가 10대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후반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은 70명으로 17.1%를 차지했다. 40세가 넘어서 술을 배운 사람이 24명으로 5.6%였다.

표 7. 최초 음주 연령

연령	응답자	비율(%)
15세 이하	13	3.1
16 - 19 세	88	21.3
20 - 24 세	143	34.8
25 - 29 세	70	17.1
30 - 34 세	32	7.8
35 - 39 세	16	3.8
40세 이상	24	5.6
무 응 답	25	6.1
계	411	100

2. 국내 알코올 소비량과 순수 알코올 소비량

1) 알코올의 분류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주류를 알코올 함량 및 원료에 따라 맥주, 와인, 증류주로 나누고 있다. 알코올 함량을 보면 맥주는 0.5~14%, 와인은 10~14%, 증류주는 20% 정도를 말한다. 증류주는 35% 이상의 높은 술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소주는 희석식, 증류식 할 것 없이 21%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으며 증류주로 분류된다.

표 8. WHO 방식에 의한 주류의 3분류

구분	맥주	와인	증류주
알코올 함량	4%	7~19%	20~50%
제조방법	발효	발효	증류
주종	맥주	포도주·과실주· 청주·탁주·약주	위스키·브랜디· 고량주·리큐르·소주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이 연구에서는 주종 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을 뽑아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했고 WHO의 3분류 방식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도 함께 제시했다.

2) 국내 주류 공급량

국내 주류 공급량은 국내에서 생산돼 출고한 술과 외국에서 수입한 술의 양을 합해서 구했다.

$$\text{국내 주류 공급량}(kl) = \text{국내 주류 출고량} + \text{국내 주류 수입량}$$

가. 국내 주류 출고량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연도별 주요 주류 출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주류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량이다. 생산된 주류가 모두 소비되지 않았을 수

도 있지만 재고 물량을 파악할 길이 없어 출고 물량을 소비량으로 간주했다.

2003년 출고된 주류는 3백7만7412 kl로 1997년보다 6.8% 증가했다(표9). 2003년 물량은 전년도인 2002년에 비해 0.68% 정도 늘긴 했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종 별로 보면 소주는 1998년 외환 위기 때 소비량이 증가했고 그 후 큰 변화가 없다가 2003년에도 경기가 침체하면서 총 출고량이 2002년에 비해 7.2% 가량 늘어났다.

표 9. 연도별 주요 국내 주류 출고량 현황

(단위: kl)

분류	2000	2001	2002	2003
맥주	1,730,790 (9.64%)	1,755,232 (1.41%)	1,935,200 (10.25%)	1,896,302 (△2.01%)
탁주,약주	181,007 (△0.82%)	170,203 (△5.97%)	175,890 (3.34%)	189,208 (7.57%)
청주	28,477 (△9.89%)	23,214 (△18.48%)	23,736 (2.25%)	23,650 (△0.36%)
과실주	6,622 (△3.00%)	7,924 (19.66%)	12,236 (54.42%)	16,052 (31.19%)
소주	866,967 (△8.24%)	784,873 (△9.47%)	866,340 (10.38%)	928,492 (7.17%)
위스키	12,572 (20.80%)	14,296 (13.71%)	17,211 (20.39%)	12,110 (△29.64%)
기타	20,541 (△1.57%)	36,101 (75.75%)	26,044 (△27.86%)	11,598 (△55.47%)
계	2,846,976 (2.58%)	2,791,843 (△2.50%)	3,056,657 (10.92%)	3,077,412 (0.68%)

주: 주정 제외, 기타 주류는 리큐르, 일반 증류주 등을 말함, 괄호안의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맥주는 1990년 대 중반 이후 소비량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늘어나 2002년에 10.25%로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다 2003년 경기 침체의 여파로 2% 가량 줄었다.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맥주의 성장세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2003년 여름에 유난히 비가 온 날이 많았던 점도 맥주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 됐다.

2003년 경기 침체의 여파는 위스키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를 졸업하면서 2000년 이후 급성장했다. 2000년 20.8%, 2001년 13.7%, 2002년 20.39% 소비량이 늘었다. 하지만 2003년에는 29.64%나 감소했다.

국내 출고량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약주이다. 백세주나 산사춘 등으로 대표되는 약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비량이 급증했다. 2003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7.57% 증가했다.

나. 연도별 주류 수입량

국내 소비량을 환산하려면 국내 출고량에다 수입량을 더해야한다. 우리나라 주류 수입은 1984년 맥주 시장 개방, 1987년 포도주 시장 개방, 1990년 이후 모든 주류에 대해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졌다.

2003년 국내에 수입된 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술은 위스키로 2만 6715 kl가 들어왔다(표10). 전체 수입량의 42.7%를 차지한다.

위스키는 소비자의 입맛이 고급화되고 폭탄주 문화가 확산되면서 2001년에 수입량이 65.55%나 늘었다. 영국 등 위스키 업체의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이 떠올랐다. 2002년에는 2만8000 kl까지 늘었다가 2003년에 경기 침체 여파로 4.66% 줄었다. 2003년 국내에서 생산된 위스키가 전년보다 29.64%가 줄어든 데 비하면 수입 위스키 감소폭은 적은 편이다. 왜냐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프리미엄 급 고급 위스키는 별로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맥주는 2001년 외국 맥주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서 109%나 수입량이 늘었으나 2002년에는 2.35% 줄었다가 2003년에 1.32% 약간 늘었다.

포도주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23.13%, 2002년 18.39% 늘었다. 경기 침체로 거의 모든 술의 수입이 줄었던 2003년에도 18.26% 증가했다. 그 해 프랑스의 보졸레 누보에 대한 인기가 급증한 것도 포도주 수입량 증가에 한 몫 했다.

표 10. 연도별 주류 수입량 현황

(단위 : kl)

분류	2000	2001	2002	2003
맥주	8,477 (252.62%)	17,750 (109.39%)	17,332 (△2.35%)	17,561 (1.32%)
소주	38 (123.53%)	13 (△65.79%)	10 (△23.08%)	18 (80.00%)
위스키	21,780 (65.55%)	24,163 (10.94%)	28,022 (15.97%)	26,715 (△4.66%)
포도주	7,614 (46.42%)	9,375 (23.13%)	11,097 (18.39%)	13,123 (18.26%)
고량주	1,482 (381.17%)	1,626 (9.72%)	1,580 (△2.83%)	2,475 (56.65%)
꼬냇	1,949 (40.32%)	1,020 (△47.67%)	1,339 (31.27%)	1,294 (△3.36%)
브랜디	70 (75.00%)	482 (588.57%)	605 (25.52%)	580 (△4.13%)
청주	60 (△4.76%)	114 (90.00%)	149 (30.70%)	165 (10.74%)
보드카	219 (78.05%)	288 (31.51%)	380 (31.94%)	440 (10.74%)
데킬라	351 (108.93%)	176 (△49.86%)	227 (28.98%)	185 (△18.50%)
사과주	139 (139.00%)	29 (△79.14%)	38 (31.04%)	30 (△21.05%)
오가피주	1,656 (△22.76%)	10 (△99.40%)	6 (△40.00%)	6 (0%)
인삼주	0 0	17 (17.00%)	3 (△82.35%)	0 (△100.00%)
계	43,835 (75.26%)	55,063 (25.61%)	60,788 (10.40%)	62,592 (2.97%)

주: 괄호안의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 관세청

다. 국내 주류 공급량

국내 주류 출고량과 수입량을 합하면 국내 주류 소비량이 나온다. 수출되는 주류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국내 출고량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003년 공급량은 3백14만4kl이다(표11). 2002년에 비해 0.75% 증가했다. 2000~2003년 주종 별 공급량의 차이는 국내 출고량과 수입량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2003년 공급량을 분석해보자. 소비량이 가장 많은 주류는 맥주이다. 전체 소비량의 60.95%를 차지한다. 2000년에는 맥주의 비중이 전체 공급량의 60.16%였다. 3년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3년 공급량 면에서 맥주 다음으로 많은 술은 소주이다. 전체의 29.57%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소주가 30.01%를 차지했다. 소주 역시 3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맥주와 소주 다음으로 탁·약주(6.02%), 위스키(1.24%) 등이 뒤를 이었다. 맥주, 소주, 탁·약주, 위스키 등 4대 술이 97.78%를 차지하고 있다.

과실주와 포도주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03년 과실주 공급량은 1만 6052 kl로 2000년보다 137.5% 늘었다. 포도주는 2003년에 1만3123 kl가 공급됐는데 2000년에 비해 72.4% 증가했다.

청주나 꼬냑 등은 소폭 줄었고 나머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 11. 연도별 주류 공급량 현황

(단위 : kl)

종류	2000	2001	2002	2003
맥주	1,739,267 (60.16%)	1,772,982 (62.28%)	1,952,532 (62.63%)	1,913,863 (60.95%)
포도주	7,613 (0.26%)	9,375 (0.33%)	11,097 (0.36%)	13,123 (0.42%)
과실주	6,760 (0.23%)	7,924 (0.28%)	12,236 (0.39%)	16,052 (0.51%)
탁·약주	181,007 (6.26%)	170,203 (5.98%)	175,890 (5.64%)	189,208 (6.02%)
청주	28,537 (0.99%)	23,328 (0.82%)	23,885 (0.77%)	23,815 (0.76%)
사과주	0 (0%)	29 (0%)	38 (0%)	30 (0%)
소주	867,507 (30.01%)	784,886 (27.57%)	866,350 (27.79%)	928,510 (29.57%)
고량주	1,482 (0.05%)	1,626 (0.06%)	1,580 (0.05%)	2,475 (0.08%)
꼬냇	1,949 (0.07%)	1,020 (0.04%)	1,339 (0.04%)	1,294 (0.04%)
데킬라	351 (0.01%)	176 (0.01%)	227 (0.01%)	185 (0.01%)
보드카	218 (0.01%)	288 (0.01%)	380 (0.01%)	440 (0.01%)
브랜디	135 (0%)	482 (0.02%)	605 (0.02%)	580 (0.02%)
오가피주	1,656 (0.06%)	10 (0%)	6 (0%)	6 (0%)
위스키	34,350 (1.19%)	38,459 (1.35%)	45,213 (1.45%)	38,825 (1.24%)
인삼주	180 (0.01%)	17 (0%)	3 (0%)	0 (0%)
기타	20,079 (0.69%)	36,101 (1.27%)	26,044 (0.84%)	11,598 (0.37%)
계	2,891,091 (100%)	2,846,906 (100%)	3,117,445 (100%)	3,140,004 (100%)

주: 괄호안의 %는 연도별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뜻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관세청

3) 국내 순수 알코올 공급량

가. 알코올 기준 도수

주세법에 따르면 술은 에틸알코올이 1% (1도) 이상 함유된 음료수를 말한다. 순수 알코올 공급량이란 실제 공급된 술에 포함된 에틸알코올의 함유량을 구하면 된다. 에틸알코올 함유량은 기준 도수로 표시된다. 에틸알코올은 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주세법 제 3조 3항).

여기에 쓰는 기준 도수는 주세법이 정한 규정이다. 1990년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 6조는 주요 주류별 기준 도수를 정하고 있다(표12). 이 기준은 주류 도수를 규제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해에 출고된 주류 별 수량을 산정할 때 적용했다. 이 조항은 1995년 9월 삭제됐지만 국세청에서 주세통계를 낼 때 이 기준 도수를 활용하고 있다. 대한주류공업협회 역시 이 기준을 쓰고 있다.

다만 소주는 기준 도수가 25도로 돼 있지만 실제로 소주업체들은 순한 술을 찾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기준 도수를 계속 낮추고 있다. 90년 대 말까지 25도를 유지했으나 2000년 23도로 낮춘 뒤 2001년까지 이를 유지했다. 2002년부터 22도로 바뀌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22도가 정착됐다. 2004년에는 21도로 1도 낮아졌다. 2006년에는 19.5도 짜리가 나올 예정이다.(연합뉴스, 2005년 12월 12일 보도)

표 12. 주종 별 기준 도수 현황

세부 분류	알코올 함량(%)
맥주	4
포도주	12
과실주	12
탁·약주	7
청주	16
와인쿨러	12
소주	22~23 ¹⁾
위스키	40
브랜디류	40
일반증류주	40
리큐르	35
인삼주	35
오가피주	35
꼬냑	40
보드카	40
고량주	40
데킬라	40
기타	20

주: 1) 소주의 기준 도수는 2000~2001년이 23도, 2002년은 22~23도, 2003년은 22도, 2004년은 21도로 낮아졌음(대한주류공업협회, 소주업계)

자료 : 국세청

나. 국내 순수 알코올 공급량

순수 알코올 공급량을 구하려면 주종 별로 알코올 공급량에다 기준도수와 비중을 곱해 이를 더하면 된다.

$$\text{순수 알코올 공급량(kg)} = \text{주종별 국내 주류 공급량} \times \text{기준도수} \times 0.79\text{g}$$

이 산식에 따라 2003년 국내 순수 알코올 공급량을 구하면 2537만6978kg이다(표13). 2000년에 비하면 7.26% 정도 늘었다. 순수 알코올 공급량은 2001년 약간 줄었다가 2002년 이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 별 변화는 국내 주류 출고량이나 국내 주류 공급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국내 주류 공급량에 기준도수와 비중을 곱해서 더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주류 공급량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주류 공급량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주종 별 비율이다.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순수 알코올 공급량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종이 소주이다. 절반이 훨씬 넘는 63.59%를 차지하고 있다. 소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4.76%, 2001년 61.57%, 2002년 61.51%이다. 몇 년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소주는 1997년에 63.23%, 98년 68.6%, 99년에 69.3%였다(정우진 등, 2004). 2002, 2003년 소주의 국내 출고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소주의 순수 알코올 공급량이 98년과 99년에 비해 낮은 이유는 소주의 기준도수가 25도에서 22도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소주의 절대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순수 알코올 공급량이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2003년 기준으로 주종 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을 보면 소주-맥주-위스키-

탁·약주-청주-포도주-과실주-꼬냇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알코올 도수를 무시한 국내 주류 공급량(표11)에서는 맥주-소주-탁·약주-위스키-청주-과실주-포도주 등의 순이었다.

표 13. 연도별 국내 순수 알코올 공급량

(단위 : kg)

분류	세부분류	2000	2001	2002	2003
맥주	맥주	5,496,084 (22.58%)	5,602,623 (24.19%)	6,170,001 (24.64%)	6,047,807 (23.83%)
	포도주	72,171 (0.30%)	88,875 (0.38%)	105,200 (0.42%)	124,406 (0.49%)
	과실주	64,085 (0.26%)	75,120 (0.32%)	115,997 (0.46%)	152,173 (0.60%)
와인	탁·약주	1,000,969 (4.11%)	941,223 (4.06%)	972,672 (3.88%)	1,046,320 (4.12%)
	청주	360,708 (1.48%)	294,866 (1.27%)	301,906 (1.21%)	301,022 (1.19%)
	사과주	0 (0%)	275 (0%)	360 (0%)	284 (0%)
증류주	소주	15,762,602 (64.76%)	14,261,378 (61.57%)	15,399,371 (61.51%)	16,137,504 (63.59%)
	고량주	46,831 (0.19%)	51,382 (0.22%)	49,928 (0.20%)	78,210 (0.31%)
	꼬냇	61,588 (0.25%)	32,232 (0.14%)	42,312 (0.17%)	40,890 (0.16%)
	데킬라	11,092 (0.05%)	5,562 (0.02%)	7,173 (0.03%)	5,846 (0.02%)
	보드카	6,889 (0.03%)	9,101 (0.04%)	12,008 (0.05%)	13,904 (0.05%)
	브랜디	4,266 (0.02%)	15,231 (0.07%)	19,118 (0.08%)	18,328 (0.07%)
	오가피주	45,788 (0.19%)	277 (0%)	166 (0%)	166 (0%)
	위스키	1,085,460 (4.46%)	1,215,304 (5.25%)	1,429,363 (5.71%)	1,226,870 (4.83%)
	인삼주	4,977 (0.02%)	470 (0%)	83 (0%)	0 (0%)
	기타	317,248 (1.30%)	570,396 (2.46%)	411,495 (1.64%)	183,248 (0.74%)
	계	24,340,758 (100%)	23,164,315 (100%)	25,037,153 (100%)	25,376,978 (100%)

주: 추정 제외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관세청 수입통계

소주와 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가 순수 알코올 공급량 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4) 알코올 3분류에 따른 주종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

WHO 방식(표8)에 따라 알코올을 3분류해서 순수 알코올 공급량을 구하면 증류주의 공급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온다.

표 14. 분류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 (단위:kg)

분류	2000	2001	2002	2003
맥주	5,496,084 (22.58%)	5,602,623 (24.19%)	6,170,001 (24.64%)	6,047,807 (23.83%)
와인	1,497,933 (6.15%)	1,400,359 (6.03%)	1,496,135 (5.97%)	1,624,205 (6.40%)
소주	15,762,602 (64.76%)	14,261,378 (61.57%)	15,399,371 (61.51%)	16,137,504 (63.59%)
기타 증류주	1,584,139 (6.51%)	1,899,955 (8.21%)	1,971,646 (7.88%)	1,567,462 (6.18%)
증류주 소계	18,717,402 (71.27%)	17,401,454 (69.78%)	19,082,059 (69.39%)	19,905,535 (69.77%)
총계	24,340,758 (100%)	23,164,315 (100%)	25,037,153 (100%)	25,376,978 (100%)

2000~2003년 4년 동안 증류주의 순수 알코올 공급량이 72% 안팎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증류주의 주종 별 알코올 기준 도수가 높기 때문에 맥주나 와인류보다 순수 알코올 공급량이 많게 나오는 것이

다.

맥주와 소주를 비교해보자. 2003년 주류 공급량에서 맥주가 60.95%, 소주가 29.57%(표11)를 차지했으나 순수 알코올 공급량(표13)에서는 소주가 63.59%, 맥주가 23.83%를 차지했다. 두 가지 술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소주의 기준 도수가 맥주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소주가 알코올 공급량이 훨씬 많다는 뜻이다.

3.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1)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

표15.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2003년 기준) (단위:억원,%)

구 분	사회부담	개인부담	계	백분율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비				
직접의료비				
건강보험	1,999	715	2,714	
의료보호	801	361	1,162	
산재보험	1,597	-	1,597	
자동차보험	370	369	739	
간접의료비	-	2,367	2,367	
의료보조비	-	3,149	3,149	
소계	4,767	6,961	11,728	4.83
생산성 감소의 손실				
질병, 사고	1,032	-	1,032	
음주 숙취	123,817	-	123,817	
소계	124,849	-	124,849	51.44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인력 손실				
질병	27,212	-	27,212	
사고	31,089	-	31,089	
소계	58,301	-	58,301	24.02
재산피해				
교통사고	1,873	-	1,873	
화재사고	569	-	569	
소계	2,442	-	2,442	1.01
각종 행정비용				
자동차보험	1,694	-	1,694	
경찰행정	1,126	-	1,126	
소계	2,820	-	2,820	1.16
알코올소비 지출		42,579	42,579	17.54
합계	193,179	49,540	242,719	100.0

자료: 이락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5

이락현(2005)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산정한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24조2719억원이다. 알코올로 인해 숙취·질병·사고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12조4849억원으로 전체 사회 경제적 비용의 51.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알코올로 인한 조기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생산 인력 손실이 5조8301억원으로 24.02%에 달한다.

알코올 때문에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직간접 의료비는 1조1728억원이었다. 전체 사회 경제적 비용의 4.8%에 불과하다.

2) 주종별 사회경제적 비용

2003년 기준으로 알코올의 전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주종 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의 비율(표13)에 따라 나누면 주종 별 사회 경제적 비용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소주가 15조4345억원, 맥주가 5조7840억원, 위스키가 1조1724억원, 포도주와 탁주 등의 와인류가 1조5534억원, 고량주·오가피주·꼬냇 등의 기타 증류주가 3277억원으로 조사됐다.

표 16.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 억원)

분류	세부분류	순수알코올	
		공급량의 비율(%)	사회 경제적 비용
맥주	맥주	23.83	57,840
와인류	포도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 등	6.40	15,534
증류주	소주 ⁱ	63.59	154,345
	위스키	4.83	11,723
	기타 증류주	1.35	3,277
계		98.65	239,442

WHO의 알코올 3분류 방식대로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구하면 증류주가 16조9345억원, 맥주가 5조7840억원, 와인이 1조5533억원이다. 증류주는 소주가 15조4345억원, 나머지가 1조5000억원이다.

4. 고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이번 연구는 정우진 등의 2004년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 연구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그 때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정우진 등의 2004년 연구에서는 국내 출고량과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빼 국내 주류 공급량을 구했다. 수출되는 주류는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국내 출고량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수출량을 뺄 필요가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0~2003년 국내 주류 공급량을 구했다. 정우진 등은 2004년 연구에서 97~2000년 공급량을 구했다. 두 연구에서 겹치는 2000년의 국내 주류 공급량을 비교했더니 이번 연구의 2000년 공급량이 정우진 연구보다 13만1866kl 많은 289만1091 kl로 조사됐다.

정우진 등의 2004년 연구에서는 소주의 순수 알코올 기준도수를 25도로 잡았다. 대한주류공업협회와 국세청의 자료를 따다 쓴 것이다. 실제로 소주는 순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느라 기준 도수가 계속 내려가 2003년에는 22도가 됐다. 국세청 기준보다 실제 기준도수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했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술을 알아보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 6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2004년 연구에서는 이런 조사가 없었다.

알코올 중독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일부 한계를 안고 있다. 전국 20

곳의 알코올 상담센터를 찾은 통원치료 환자들에게 설문을 돌렸지만 실제 회수된 데는 14곳이었다. 광주·인천 등지에 있는 알코올 상담센터 환자들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표본의 크기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할당되지 않았다. 또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한 모든 환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으나 응답을 거부한 환자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환자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설문을 강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알코올 치료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도 전국의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골고루 표본을 추출했어야 하지만 조사에 응한 병원 11곳과 그 병원의 환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만 표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알코올 상담센터 환자와 마찬가지로 병원 입원환자도 병원 별로 샘플의 크기가 다르게 잡혔다.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 술의 종류가 뒤섞여 있을 수도 있다.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한 달 전에 주로 많이 마셨던 술을 조사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치료 직전까지 마신 술이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 술로 간주해도 크게 무리한 접근법은 아닌 것으로 간주돼 이 방법을 사용했다.

설문 응답자 중 여자가 7.8%에 불과해 연구가 남성 위주로 진행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주종 별 알코올의 사회적 비용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내에서 소비된 주종 별 소비량과 주종별 알코올의 소비량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 술 소비량을 산출할 때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적 자료를 활용했다. 정부 통계에 잡히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비되는 술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 술의 양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했다. 가짜 양주, 군부대에서 유출된 술, 중국 등지의 밀수품,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제조하는 동동주 등이 그것이다. 블랙마켓의 통계는 없다. 연구 자료도 없다. 일부 부분적인 자료가 있어도 주종 별 자료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 술을 포함하지 못했다.

또 여행객들이 휴대해서 반입하는 위스키나 포도주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내선 항공기를 통해 반입되는 술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가 있으며 주종 별 통계는 없다.

그렇지만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 술이나 여행객이 반입하는 술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주종 별 사회적 비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특정 연도의 국내 술 소비량을 좀 더 정확히 계산한다면 출고량에서 재고를 빼야한다. 팔리지 않아 창고에 보관된 술을 빼는 게 맞다. 하지만 술 재고, 특히 주종 별 재고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해 '출고량=소비량'으로 간주했다.

폭탄주로 불리는 새로운 음주 문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폭탄주는 군대나 법조계에서 유행하던 음주 문화인데 요즘에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맥주와 양주를 섞어서 폭탄주를 만든다면 맥주와 양주의 소비량과 알코올의 소비량은 따로 마실 때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따로 마실 때에 비해 폭탄주는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계산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고 주종 별 사회 경제적 비용에서도 폭탄주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어야 하지만 자료가 마땅치 않아 이번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2) 연구내용에 대한 고찰

이번 연구에서는 주종 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을 먼저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종 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2003년 순수 알코올 공급량은 2537만6978kg이었다. 정우진 등이 2004년에 구한 순수 알코올 공급량(2000년 기준)은 2442만232kg이었다. 3년 사이에 95만6746kg(3.77%)이 늘었다.

순수 알코올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소주의 비율은 2004년 연구에서는 65.26% 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63.59%로 약간 줄었다. 대신 맥주는 2004년 연구에서 22.16% 였다가 이번에는 23.83%로 약간 올라갔다.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주종 별 순수 알코올 공급량의 비율로 나눠 주종별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이런 변화가 반영됐다.

정우진 등(2004)의 연구 결과보다 소주의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소주의 순수 알코올 기준 도수를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정우진 등의 연구에서는 25도, 이번 연구에서는 22도로 잡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팔리는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4년 연구보다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주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정우진 등(2004)의 연구에서 12조9294억원이 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15조4345억원으로 2조505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알코올 중독을 야기한 주종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다보니 이번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가 없었다.

Ⅲ. 결 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술을 1,2차로 나눠 마신다. 1차에는 소주를, 2차에는 맥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음주 인구도 매년 늘고 있다. 92년 46.9%이던 음주율이 2001년에는 50.6%로 증가했다. 음주율이란 술을 자주 마시거나 가끔 마시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남자 음주자의 48.9%가 고위험 음주자(1회 음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일 정도로 폭음하는 사람도 많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를 마시는 인구가 훨씬 많다. 음주자의 60% 가량이 소주를 즐겨 먹고 37%는 맥주를 마신다(정우진 등, 2004).

알코올은 각종 해악을 초래한다. 알코올은 사망과 장애 유발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며 조기 사망과 장애로 인한 생존연수 손실에 있어 담배와 불법 의약품보다 더 큰 질병 부담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HO, 200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술이 얼마만큼의 해악을 초래하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600명에게 알코올 중독을 야기한 주종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했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의 자료를 활용해 2000~2003년 국내 주류 공급량과 국내 순수 알코올 공급량을 구했다.

연구 결과, 알코올 중독을 야기하는 주범이 소주이고 알코올의 사회 경제적 비용의 절대 다수를 소주가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첫째, 알코올 중독의 제 1의 원인이 되는 술은 소주였다. 알코올 중독자의 85.9%가 치료를 받기 직전에 소주를 가장 즐겨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맥주(6.6%), 탁주(4.9%) 였다.

둘째, 알코올 중독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사람이 21.8%, 50만~100만원이 20.9%로 100만원 이하가 42.7%를 차지했다. 100만~200만원에 든 사람도 33.4%였다.

셋째, 2003년 국내에 공급된 술은 314만kl였다. 가장 많은 술은 맥주로 전체 소비량의 60.95%였다. 다음으로 소주가 29.57%, 탁·약주가 6.02%, 위스키가 1.24%였다. 맥주, 소주, 탁·약주, 위스키 등 4대 술이 97.78%를 차지했다.

넷째,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2537만6978kg이다. 이 중 소주가 절반이 넘는 63.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맥주가 23.83%였다. 위스키가 4.83%, 탁·약주가 4.12%, 청주 1.19%, 포도주 0.49% 순이었다.

다섯째, 주종 별 사회 경제적 비용은 소주가 15조4345억원, 맥주가 5조 7840억원, 위스키가 1조1724억원, 포도주와 탁주 등의 와인류가 1조5534억원, 고량주·오가피주·꼬냑 등의 기타 증류주가 3277억원이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술은 소주이다. 알코올 중독의 주범도 소주이다.

그러나 국민의 60% 가량이 소주를 즐겨 먹고, 특히 서민층에서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소주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별로 없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소주의 주세 인상, 소주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등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보니 이런 정책이 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가 다음과 같은 정부 정책에 잘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주세율 체계 개편 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주종별 주세율을 보면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가 72%, 맥주가 90%, 과실주·칭주·탁주 등 와인류가 5%이다. 맥주는 2006년 80%, 2007년 72%로 내리기로 돼 있다. 대부분의 술에는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된다.

원가 대비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93.6%, 맥주는 117%이며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주와 위스키는 113%, 맥주는 138.7%이다. 2007년에는 소주와 증류주, 맥주 등 주요 주종의 세율이 같아진다.

소주는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63.6%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주세는 맥주보다 18% 포인트나 낮게 책정돼 있다. 맥주는 사회 경제적 비용의 21.9%를 야기한다. 소주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런데도 세율은 소주보다 높게 돼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주의 3분의 1에 불과한데도 세율은 더 높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005년 7월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술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건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류업계 등의 반대가 심해 제대로 심의가 안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현행 주세제도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각종 문제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들은 고도주에는 고세율을, 저도주에는 저세율을 적용하여 음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동일한 주

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수를 차등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우리나라는 이런 점을 등한시하고 있다(정우진 등, 2004).

유럽 국가의 소매가격 대비 주세 부담을 비교하면 맥주와 포도주는 30%, 증류주는 60%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맥주와 포도주는 비슷하지만 증류주 세부담은 낮은 편이다(장근호, 2005)

따라서 주세를 개편하거나 건강부담금을 만약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소주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절주정책의 자료로 제시한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12월 말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절주정책을 시행해 2003년 성인 남성 음주율을 79.5%에서 2010년 72%로, 여자는 73.5%에서 70%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음주 시작 연령을 늦추고 성인의 고도위험 음주자 비율을 감소시키며 월간 폭음 경험률을 낮추는 등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주종 별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다. 전체 알코올 소비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경제적 비용과 알코올 중독자를 유발하는 주종이 뭔지를 알고 접근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

음주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이 추진하다보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절주운동의 소득계층 별 접근법이 달라야한다. 이번 조사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39.2%, 소주 중독자의 42.7%가 월 소득이 100만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알코올에 더 노출돼 있고 특히 고도주의 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주와 맥주의 적정 세율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는 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해악을 초래

하는 지도 세율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소주가 대중 주라는 이유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계속 미룬다면 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독을 야기한 주종에 초점을 맞췄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음주 기간, 알코올 중독 기간, 중독 후 재산이나 가족의 변화, 적정 치료 여부, 중독 이유 등을 파악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0~2003
- 관세청. 관세통계연보 2000~2003
- 노인철, 서문희, 김영래.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이희중, 장승욱. 직장인 음주문제프로그램의 한국형 모형 설정 연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4-1
- 정우진, 김한중, 이상욱, 이선미, 이후연, 전현준, 신승호, 최윤정. 알코올의 보건경제학.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5
- 유태우, 정우진, 이선미, 이성희. 선호 주종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회지 2003; 24(4); 912-918
- 정우진, 유태우, 이선미. 음주 주종과 급성위해 유발 음주 위험도. 대한예방의학회지 2003; 36(4); 383-389
- 인제대 음주연구소 김광수 교수팀. 한국의 음주사망 수준의 변화 : 1995~2000년 /2004년 공개
- 삼성경제연구소, 직장인의 음주형태와 기업의 대책. 2004
- 정우진. 알코올 주종과 고위험 음주. 알콜&알콜리즘, 2004; 39(1); 39-4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알코올 백과. 2002
- 장근호.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 방안. 재정포럼 2005; 9; 147-158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

조 희. 한국성인의 음주실태 조사. 적십자간호대학 논문집 **1998; 20; 55-76**

이동필, 김종선, 조영우.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02**

이정태. 적정음주에 대한 의학적 접근.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000;26(4):373-382**

천성수.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세 부과에 대한 타당성 분석. 한국알코올과학
회지 **2001; 2(2); 77-97**

조현섭. 문제음주 선별검사 개발. 이화여대대학원, **2004**

설문지

1. 이 센터에 들어오기 직전 한 달 동안 술을 드신 날은 며칠입니까?
30일 중에서 ____ 일
2. 이 센터에 들어오기 직전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드신 술은 무엇입니까?
 - a. 맥주 -----> 3번으로
 - b. 소주 -----> 5번으로
 - c. 양주 -----> 8번으로
 - d. 막걸리 -----> 10번으로
 - e. 포도주 -----> 12번으로
 - f. 기타 -----> 14번으로
3. ('맥주를 가장 많이 마셨다'고 응답한 분만) 이 센터에 들어오기 전 한 달 동안 맥주를 드신 날은 모두 며칠입니까?
 - a. 30일 중에서 ____ 일
 - b. 모른다/확실하지 않다.
 - c. 무응답
4. ('맥주를 가장 많이 마셨다'고 응답한 분만) 맥주를 드신 날 하루 동안 대체로 얼마나 드셨습니까? 둘 중 하나에 표기해 주십시오.
 - a. 병맥주 ()병 (병 크기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00ml 짜리를 말함)
 - b. 생맥주 500cc ()잔
5. ('소주를 가장 많이 마셨다'고 응답한 분만) 이 센터에 들어오기 전 한 달 동안 소주를 마신 날은 모두 며칠입니까?

b. 양주 () 병

10. ('막걸리를 가장 많이 마셨다'고 응답한 분만) 이 센터에 들어오기 전 한 달 동안 막걸리를 드신 날은 모두 며칠입니까?

- a. 30일 중에서 ____일
- b. 모른다/확실하지 않다.
- c. 무응답

11. ('막걸리를 가장 많이 마셨다'고 응답한 분만) 막걸리를 드신 날 하루 동안 대체로 얼마나 드셨습니까?

- a. 막걸리 () 잔
- b. 막걸리 () 병

12. ('포도주를 가장 많이 마셨다'고 응답한 분만) 이 센터에 들어오기 전 한 달 동안 포도주를 드신 날은 모두 며칠입니까?

- a. 30일 중에서 ____일
- b. 모른다/확실하지 않다
- c. 무응답

13. ('포도주를 가장 많이 마셨다'고 응답한 분만) 포도주를 드신 날 하루 동안 대체로 얼마나 드셨습니까?

- a. 포도주 () 잔
- b. 포도주 () 병

14. 맥주, 소주, 양주,포도주 이외에 어떤 술을 드셨습니까? _____

15. 위(14번)의 술을 대체로 얼마나 드셨습니까?

- () 잔
- () 병

16. 지난 한달 동안 위(14번)의 술을 드신 날은 모두 며칠입니까?

- a. 30일 중에서 ____일
- b. 모른다/확실하지 않다.
- c. 무응답

(아래 질문부터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7. 이 센터에 들어오기 직전에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까?

- a. 예 -----> 16번으로
- b. 아니오

18. 이 센터에 들어오기 전 한 달 동안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까?

- a. 예
- b. 아니오

19. 이 센터에 들어오기 전 한 달 동안 음주 때문에 가정 내 갈등이 있었습니까?

- a. 있었다
- b. 없었다

20.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몇 모금씩 마신 것은 제외)

만 () 세

2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22. 연령은 만 ()세

23. 최종학력은.

- a. 무학

- b. 초등학교 졸
- c. 중학교 졸
- d. 고등학교 졸
- e.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
- f. 대학원 졸

24. 이 센터에 들어오기 전 1년 동안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a. 월 50만원 이하
- b. 월 50만~100만원
- c. 월 100만~200만원
- d. 월 200만~300만원
- e. 월 300만~500만원
- f. 월 500만원이상

25. 이 센터에 들어오기 직전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a.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
- b. 자영업(종업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
- c. 서비스직 종사자(세탁,이·미용사, 요식,숙박업 등)
- d. 판매 영업직 종사자(판매원, 소·도매업, 보험, 부동산 등)
- e.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운전사,선반,목공, 숙련공 등)
- f. 단순 노무자(단순 노무, 수위 등)
- g. 고위 공직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4급 이상 공무원,교장,기업체 부장 이상 등)
- h. 전문직(대학교수,의사,변호사,예술가,연구원 등)

l. 기술직 및 준 전문직(기술직, 초중고 교사, 5급 공무원 등)

m. 일반 사무직(일반회사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등)

n. 주부(가사에만 전념하는 주부)

o. 대학생/대학원생

p. 무직

q. 기타 ()

26.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입니까?

1. 예

2. 아니오

<설문 응답 현황>

(단위 : 명)

센터	응답자	병원	응답자
부산알코올상담센터	15	부산대학병원	15
대전알코올상담센터	9	광주시립인광정신치매병원	29
울산알코올상담센터	11	대전한광수신경정신과	24
수원알코올상담센터	25	울산마야병원	12
강원알코올상담센터	17	포항의료원	20
아산알코올상담센터	28	진주정신병원	25
전북알코올상담센터	10	한라의료원	10
목포알코올상담센터	28	강릉아나병원	7
포항알코올상담센터	10	카프병원	17
진주알코올상담센터	5	구민병원	30
제주알코올상담센터	10	카프거주시설	15
영동지역사회알코올상담센터	15		
서울알코올상담센터	22		
일산알코올상담센터	6		
계	211		204

주: 상담센터 응답자 4명은 답변이 부실해 분석대상에서 제외

ABSTRACT

Drinking population is growing every year. Ill effects due to alcohol is also increasing. The major ill effect caused by drinking is cultivating alcoholics. There is no concret statistics on alcoholics. Korean government suggests an estimated number of 3,000,000. There has never been any study on the types of alcohol that cultivate alcoholics or on the kinds of alcohol that costs socioeconomic expenses.

This thesis analyses the socioeconomic expenses of alcohol in detail and depth. The result is that 85.9% of alcoholics ranked soju as the main type of alcohol they had drunk the most, a month before their medical treatment. Beer was counted by only 6.6% of alcoholics. Makkolli and whiskey came next. Asked why they drank soju the most, 44% of alcoholics replied that is was cheap and it made them get drunk faster. 35.1% of alcoholics answered that they preferred the taste. 5.8% answered it was easy to buy and 5.1% pointed out it was commonly drank by others.

42.7% of alcoholics who preferred soju had monthly income of less than 1,000,000 won. Only 33.4% earned between 1,010,000~2,000,000 won. It could be easily understood that soju is the principle factor leading to alcoholics and the main reason for its popularity is the low price.

Pure amount of alcohol supply by types of alcoholic beverages as of 2003 had been examined. First, amount of alcohol supply of different

types of alcoholic beverages was calculated. Total amount of alcoholic beverages manufactured or imported in 2003 was 3,140,000kl: beer accounted for 60.9%, soju 29.6%, makkolli and clear strained rice wine 6.02% and whiskey 1.2%.

Pure amount of alcohol supply is drawn from alcohol content in alcoholic beverages: beer 4% and soju 22%. Pure amount of alcohol supply in 2003 was 25,376,978kg. By types of alcoholic beverages, soju had the largest portion, which accounted for 63.6%. Beer 23.8%, whiskey 4.8%, makkolli and rice wine 4.1% and clear strained rice wine 1.2% followed.

Lee Lak-Hyun of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calculated that socioeconomic expenses in 2003 amounted to 24 trillion won.

Socioeconomic expenses of types of alcohol can be derived from dividing socioeconomic expenses by the portion of pure amount of alcohol supply of different types of alcoholic beverages. Soju accounts for 15.4 trillion, beer 5.78 trillion, whiskey 1.17 trillion won.

Liquor tax of soju is allotted 18% point less than beer although soju arouses most of the socioeconomic expenses of alcohol. Consumption of soju could be reduced by raising price since soju is usually drunk by the low-income bracket.

In mid 2005 Korea government planned to raise tax on soju, but the policy had failed and withdrawn due to opposition that it would give

burden on the common people. This thesis made clear that raising soju tax might put economic burden on the populace but at the same time the low price of soju could lead to more socioeconomic ill effects such as cultivating alcoholics.

Key Words : alcohol, alcoholics, costs socioeconomic, soju, beer, whiskey